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凡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の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の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三、明代的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상황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머리에 一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四、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五、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가, 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너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六、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이다. 그러나 원본의 體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贊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 脫字 衍字 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경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보여서 이가 아니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語) 포함) 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여의(177) ()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나타내려 노력하였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行^先——干支行^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干支와 後續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게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世祖實錄

世祖六年(天順四年).....	一
世祖七年(天順五年).....	一五〇
世祖八年(天順六年).....	二六〇
世祖九年(天順七年).....	三〇三
世祖十年(天順八年).....	三三二
世祖十一年(成化元年).....	三七七
世祖十二年(成化二年).....	四一八
世祖十三年(成化三年).....	四七三

世祖實錄 卷十九

六年正月

○己卯朔行望闕禮御勤政殿受朝賀仍設宴宗親宰樞承旨等入侍倭人迎洒毛野人阿羅哈等三十一人亦侍召阿羅哈諭誅浪卜兒罕事由仍命阿羅哈迎洒毛^(洒毛力)等進酒令起舞^(略下)

○甲申幸慕華館觀射放火炮宗親議政府六曹參判以上承旨等入侍引見倭野人令野人尼麻車兀狄哈郁時應巨幹朶里馬千里等射侯射毛毬賜中的野人各綿布一匹弓一張又賜倭人迎洒毛虎皮一張紬布寢席等物

乙酉○火刺溫指揮照麟可等五人來獻土物

[參]○己丑遣戶曹參議李孝長如大明進海青二連奏曰^中竊念臣特荷聖

恩嗣守先業恪謹職貢凡干進獻靡不盡心每年委差的當人分遣各道多方設械儘力打捕海青然非本土所產乃北方野人深遠地面巢養出來其多少隨歲不等緣此近年所獲不敷(下略)

己丑○咸吉道敬差官康孝文馳啓速魯帖木兒實無可疑東良等處孛兒罕族親野人亦連贖來謁云孛兒罕之罪罪止一身不緣及族類我等已知國家之意阿比車亦有來投之意將家奴能彎強弓阿比車亦推以爲首今願上京侍衛御札諭楊汀曰今見康孝文書知卿布置得宜東良北之人來往會寧且有上京者可知彼人漸解疑惑矣阿比車亦有來投之勢旣以不問誘之使來來而殺之是失信也彼他日誰肯信我者今阿比車自來則語之曰上初以汝年少不與父事特命勿問尋聞汝逃逸乃命汝若不識寬貸之恩猶懷作逆則捕而罪之若自來則赦其罪使之安業若捕來則囚之啓達兀

婁哈之子將家奴如欲上京可上送當試用之速魯帖木兒既無可疑之迹更不可探侯聞見反生自疑凡待彼人當以信義寧失罪人不宜詭道誘致卿體予意

○庚寅上問承政院曰火刺溫及深處野人如或欲來朝姑托辭使之勿來如何都承旨尹子雲啓今聞有野人十餘名出來今此野人回去時使諭以今春早暖易生疾病待冬月出來可也

○甲午御思政殿設飲福宴宗親議政府六曹參議以上承旨及諸獻官執事野人等入侍命野人金伐大浪婁時哈等進酒謂諸野人曰爾等雖不各進酒飲此則均飲爾等酒也親割所御西瓜賜左右別雲劔韓明澮具致寬等分賜大肉于左右宰樞及野人

○丙申御慶會樓下觀射宗親宰樞六曹參判以上承旨諸將等入侍引見野人金伐大等二十五人命武士與之射侯火刺溫照麟可

中的賜綵段衣弓矢其餘中的者各賜綿布弓令金伐大浪婁時哈等進酒謂婁時哈曰今此射者非朝官皆是材官也爾部落有能射者送之則亦與此輩一體待之對曰小人有子能射當送矣然則他有材者安敢不來上曰予得善射者固無所用但愛其有材者耳諸宰與野人等出命留宗親及領議政姜孟卿左議政申叔舟領中樞院事洪達孫兵曹判書韓明澮等極歡乃罷

○癸卯御忠順堂觀射宗親宰樞及承旨等入侍引見野人中樞浪婁時哈等十四人命射侯其中的者賜物有差命尹士盼士昫士听成奉祖魚孝瞻及野人金波乙大進酒是日浪婁時哈等辭命饋之仍別賜浪婁時哈金波乙大等鞍具馬各一匹紅絲帶綵囊刀子各一其餘十三人紅絲帶綵囊刀子各一

癸卯○諭咸吉道都節制使楊汀曰會寧住速魯帖木兒病羸不能

自朝使人來致誠欵可辦宴令於乙巨就賜其家

丙午○咸吉道都節制使楊汀馳啓伐引住兀良哈大護軍金這比
冬哈來告阿比車請兵千餘屯于斜地今正月二十日間入寇會寧
韓朶里浪金世李阿伊打哈來告何伊亂住兀良哈兒哥乃來言阿
比車言會寧今囚林高古等九人又上京侍衛者浪三波金當李阿
豆童阿陽可亦皆被殺今欲請兵以寇會寧臣率營兵及鏡城富寧
兵到會寧見兵凡七百餘人分爲三衛以會寧節制使金師禹將中
衛都鎮撫趙繼宗將左衛會寧判官申興禮將右衛以待阿比車聚
諸種一千五百餘人正月二十日來屯會寧長城外毀木寨而入臣
出兵與戰殺賊二十餘人賊退屯速魯帖木兒家前臣還守會寧賊
夜焚長城門毀木寨翼日賊分道而入臣更率三衛力戰賊退走追
至古堡兒下距會寧三十餘里而還殺賊五十餘級賊多棄牛馬器

仗而走我軍中箭死者四人又啓會寧之戰會寧阿木河斡朶里馬仇音波等十六人初附賊見賊敗北乃率妻子來投自言爲賊所賣臣令囚于會寧府又高嶺城底兀弄草斡朶里皆棄家逃散請前此到京野人留之在道者令所在邑囚之

○以司憲掌令李繼孫爲咸吉道敬差官宣慰諸將御扎諭楊汀曰卿可謂報予恩遇矣予可謂能用賢矣以寡制衆決勝逐北威振朔方來進首級可謂公侯干城矣今遣掌令李繼孫賜卿宴慰就賜卿三表裏弓矢又賜都鎮撫趙繼宗經歷金好仁會寧節制使金師禹判官申興禮各一表裏略表予喜意論功行賞當待卿報今送綿布百匹勿論彼我任卿姑先給賞以勵其心繼孫賫去事目一若見馬千里等斡朶里宣旨語之曰阿比車雖孛兒罕之子而幼且無所犯故予特赦之今聞阿比車妄言煽動相誘聚會入寇會寧予猶憐斡

朶里兀良哈等無知求生而招死自阿比車外(マ、)竇從者一皆不問如有能捕阿比車以來者當重賞汝等今來朝見親聞予意具知事狀可往諭諸種使明知國家之意安心復業雖竇從(マ、)黨賊者予恕其勢不得已尙且有之況恐懼逃遁者乎萬一汝之家小有從賊者汝所不知汝勿恐予若過汝者何不卽殺之於路中乎汝若捕阿比車若使諸種解惑者予之嘉賞後日當知惟勿急速徐徐效力時馬千里還途一戰士傷者救療死者官爲收葬致祭賻本家各米五石布五匹依例復戶一交戰時將士功勞與楊汀同議等第一兀良哈斡朶里往來告變者與楊汀同議等第一野人不與於戰按堵如舊者與楊汀同議論賞一馬仇音波等告變誠實初雖從賊後乃來投是勢不得已(マ、)竇從者也其速放之待之如舊其餘(マ、)竇從亦皆盡赦一兀弄草斡朶里等空家逃散是必驚懼登山耳慮有軍士等乘其家空或撤取材

木或竊其財產嚴令禁護諭以赦其驚散(マ、)從之意隨其還來使之安居見鍾城近居柳尙冬哈等穩城李波兒是等慶源金管婁等諭以赦其驚散(マ、)從只購阿比車之意一童速魯帖木兒必是(マ、)從驚恐耳其空家亦宜禁護徐使諭之來則安接撫之如舊一若見柳尙冬哈則宣旨云今會寧近處兀良哈斡朶里等不能無惑於阿比車所誘予憐其愚惑(マ、)從耳已皆赦之不問汝則深知予意予所倚信汝其廣諭予意於諸種使之轉禍爲福且捕告阿比車以立大功予且聞爾亦登山是何意耶汝受我恩非他比也親受我教亦非他比也汝不知則誰知之汝其用力探知阿比車所爲以告一誘諸種野人曰阿比車誘汝等必以會寧兵馬寡弱易當民居可掠且我亡則次及汝爲辭耳汝等陷於阿比車淺謀有何利乎(祇力)取禍耳汝應知之毋執迷轉福爲福可也一若事勢與所聞不同則聽楊汀所言事

事隨宜施行不必拘

○丁未諭平安道觀察使曹孝門都節制使黃石生曰浪孛兒罕子阿比車請兵于諸種野人入寇會寧再戰皆敗北而走賊不得志於此慮恐移犯本道邊境卿知此意告諭邊將密爲隄備務要盡殲不可騷擾

丁未○東良北住寧舍爲本處副萬戶

○諭咸吉道觀察使鄭軾都節制使楊汀曰今兀良哈斡朶里等雖與阿比車等同謀寇會寧其來朝效順者不可於歸程拘留當語之曰雖汝等家人子弟與賊非汝等所知若汝等在必止之汝知此意告諭同類

○以速平住阿刺哈爲本處都萬戶

六年二月

己酉○咸吉道都節制使楊汀馳啓野人聲息命召姜孟卿申叔舟朴從愚具致寬洪允成金磧承旨等入內議事令出就賓廳抄助戰軍士以啓

○庚戌御忠順堂觀射仍設酌引見野人李家紅李肖陽介郎都良哈召領議政姜孟卿左議政申叔舟領中樞院事洪達孫禮曹判書洪允成兵曹參判金磧承旨等議事命以允成爲咸吉道助戰元帥兵曹參議林得楨爲都鎮撫崔清江爲從事官率部將四人壯士五十人及本道甲士番上者五十人赴會寧鎮聽楊汀節度特賜允成內廐鞍具馬一匹其鞍有金畫龍朱紅粘紅毛前後榮之飾

庚戌○諭黃海平安道都體察使韓明澮曰浪字兒罕子阿比車煽誘諸種野人聚千餘兵毀長城入抵會寧城下再戰敗走斬首五十級賊猶不懲諸種屯聚出沒不已平安道邊堡之完固甲兵之堅利

皆不如咸吉且攻其無備出其不意賊之常情也雖不可先自勞擾亦不可忘備卿巡審邊上量宜措置毋失事機

○辛亥正朝使先遣通事任孝連來略中孝連啓使臣出來以事干野人祕不發傳于承政院曰今來使臣支持一依陳嘉猷王軌例略下

辛亥○御忠順堂觀射引見野人李家紅等三人上曰阿比車造爲虛說誘諸部落曰朝鮮將諸向化者盡行殺死宜爲報復乃脅令作黨爲寇爾等前此出來不知阿比車作謀矣爾當以今日所見聞說與諸種種皆爲脅從耳予不咎焉若出來當待之不疑家紅等對曰我等只以言語傳之彼或不信願受書契以歸命姜孟卿申叔舟尹子雲等草諭野人書其書曰兵曹參判金碩敬奉王旨若曰浪李兒罕父子世受國恩今乃內外相應搆爲虛辭聚衆謀叛以至欲射通事因此按律科罪其子阿比車置而不問不知寬貸之恩誘引諸

種侵犯會寧其罪固大然予知彼人等率皆誑誘脅從豈其本心勢不得已耳首謀阿比車外餘皆宥之使復安業有能捕阿比車以來者重賞雖阿比車能自來則亦宜赦之爾兵曹諭李家紅李肖陽哈浪都郎哈等還語諸種使知予意汝李家紅等謹悉王旨往曉彼等使遵王旨如或執迷後悔無及

○咸吉道都節制使楊汀馳啓愁州兀良哈兀歹來告柳尙冬哈柳要時老於麟哈等聞童速魯帖木兒言會寧盡殺馬仇音波等將次及斡朶里愁州之人皆驚懼登山又賊百餘騎來屯高嶺城外古刺貴洞口萬戶李存仁登城守陣以筒箭射之賊乃遁前此城底近居野人等有變則請入行城今皆越江逃院與阿比車同謀成羣竊發其勢不止今徵洪原以南之兵戍甲山北青以北之兵戍六鎮請量送京中精勇武士兼送火炮又馳啓速魯帖木兒家人打里哈率妻